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맞손’ ‘가성비 최고·최상 워터파크’

남원시,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프리바’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6일,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프리바(Priva)와 남원시 스마트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남원시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지형, 날씨, 수자원, 일조량, 풍향 및 기반시설과 관련한 프리바가 축적한 기술력을 이용한 분석사항을 지원하는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사설원에 복합환경제어 전문기업인 프리바(Priva)는 온실 솔루션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00여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프리바의 국내 공식 파트너 회사인 미푸코와 진행 중인 한국 일정 중 진행된 지자체 방문으로, 지난 4월 남원시 관계자의 네덜란드



남원시는 6일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프리바(Priva)와 남원시 스마트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본사 방문에서 남원시의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메이니 프린스 프리바 회장의 관심으로 이뤄진 자리이다.

현재 남원시는 대신면 일대 60ha 규모의 농생명 산업지구 내 2028년까지 1,268억 원을 투입 △스마트팜 임대경영(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 원예단지) △페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

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급자리) △정주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천후 기지로 조성 중이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스마트팜은 남원시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프리바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으로 네덜란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로, 스마트팜 대표도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10일 아쉬운 폐막 “끝나기 전 서두르세요”

올해 첫 대형 돔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성비 최고, 최상의 워터파크’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아쉽게도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아이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 오는 10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아쿠아 페스티벌을 방문하면 더없는 여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지난달 26일 개막한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을 완벽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다채로워진 물놀이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폭 30m, 길이 50m 규모의 초대형 돔 시설은 폭염과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SNS의 빠른 확산력과 입소문을 탄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개막 이후 10일간 6,6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여 지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인 아쿠아 페스티벌은 어린이 DJ 파티와 K-POP 댄스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아쿠아 페스티벌 기간에 고항사랑기부제와 특별 콜라보를 이뤄 10만원 이상 기부 시 총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하루에 1,000여 명이 찾는 등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 만큼, 축제 종료일까지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기간도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축제의 흥미를 더할 판매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하고 다채로운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 중 떡볶이 전문 판매부스 20개소와 분식류 판매부스 10개소를 포함해 총 30개소에 대한 운영자를 전국 규모로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GP16dGdf>)과 재단



방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여름철 차량 내부의 고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 전기계통 이상, 연료 누출, 냉각수 부족, 배선 합선 등이 있으며, 남원소방서는 △여름철 차량 내 인화성 물질 방치 금지 △정기적인 차량 점검 △엔진룸 청결 유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차량 화재 발생 초기에는 차량



용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진화할 경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소화기 비치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추기 감자 보급금 신청 접수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감자 재배를 지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5년 추기 감자 보급금 신청을 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품종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미’ 단일 품종으로, 총 8,000kg의 총자가 관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미 품종은 식감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표 품종으로 꼽힌다.

종자 신청 및 확정된 물량은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량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 불가능하게 신청한 결정이 요구된다.

공급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관할 농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기상 여건, 생산 검사, 정선 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가격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으로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수령할 때 해당 농협에 종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순창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총 2억 1,0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945건 1억 4,200만원, △사업소분 1,482건 1억 6,7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는 보이는 전화 ARS(142211), 은행 CD/ATM기,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예산 확보 총력

중앙부처 방문 당위성 설명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6년 운영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지역에는 분만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남원시만이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를 갖추고 있어 이 지역 출산과 산후조리의 거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지리산권 출산 인프라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

하며 운영비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와도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남원시를 비롯한 인구감소 지역 내 11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사칭 사기 기승… 자영업자 주의 당부

순창소방서는 최근 관내에서 소방서를 사칭한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7월 한 달 사이 3건의 유사 범죄 시도가 보고되면서, 전북 도내 전역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범죄는 순창소방서 명의의

공무원증이나 공문서를 조작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는 ‘노쇼’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순창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는 ‘냉방기 세척 요청’과 ‘자동차세동기 구매 의뢰’ 등으로, 소방서 명의를 유사한 명함을 이용해 접근한 점이 특징이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로 대리결제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를 접할 경우 지체 없이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확한 확인 없이 요청에 응하는 일이 없도록, 자영업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